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4. 10. 21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0/14~10/18)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PPI 둔화에 물가 반등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중국 경기부양책과 위안화 약세 동조화에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강달러 나타난 가운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상승폭을 확대
- 중반, 반도체 관련주 약세 속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에 상승 압력을 받았으나 고점 인식 및 수급상 매도 우위에 소폭 상승
- 후반, 미 대선 불확실성과 영국 물가 둔화세에 따른 BOE 금리인하 가능성 및 파운드화 약세가 강달러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 이어 주 후반, 미 소매판매 호조와 ECB 금리인하 결정 등이 강달러를 지지했으나 당국 개입 경계감 속 상당 제한되며 1360원대 후반에서 마감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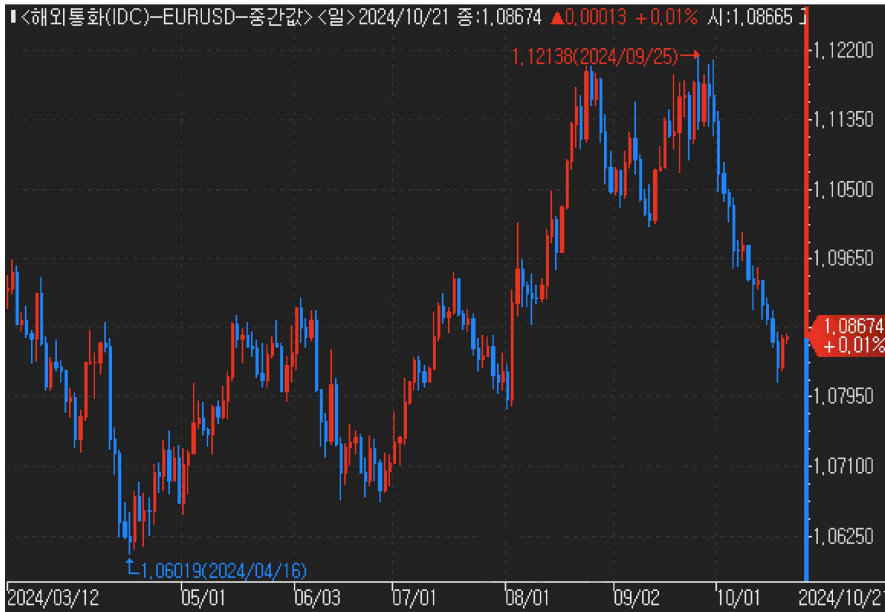
- 미국 주택지표 부진 등의 영향이 달러 약세 영향 요인으로 반영될 전망 속에 중국 경기부양 정책 등에 영향 또한 위험선호 지지함 완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 반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을 강조한 애들랜타 연은 총재의 매파 발언 및 우-러 전쟁의 북한 개입설 등 지정학적 위험 확대 등이 지속하는 측면이 완화 하단 지지 요인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1,360원대 초중반 흐름으로 하락이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52.0	1,373.0	1,350.3	1,369.7	+17.7

예상거래범위
1,355원 ~ 1,370원



엔·유로화 동향 (10/14~10/18)



유로화 동향

- 주초,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비둘기적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트럼프의 관세 지지 정책 강조 발언 등 불확실성이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면서 추가 약세를 보임
- 중반, ECB가 이달 회의에서 25bp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약세 흐름 속 1.09달러선을 하회
- 후반, ECB의 금리인하 결정이 예상에 부합함과 동시에 12월 추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약세 폭이 확대됨. 이어 주 후반, 뉴욕증시 상승세와 중국 경기 부양 기대 등 위험선호 심리 유입된 측면이 유로화를 지지하며 1.08달러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938	1.0937	1.0811	1.0866	-0.0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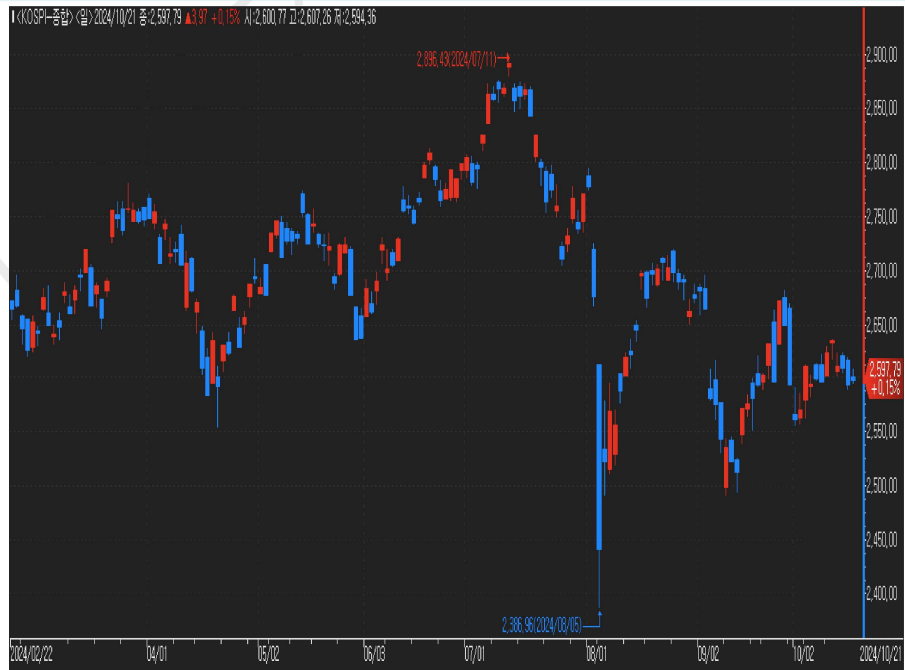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연준 관계자들이 통화완화 속도를 완만하게 가져갈 것을 시사하자 달러 강세 폭이 확대되며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뉴욕주 제조업 경기 위축세로 인한 침체 우려와 기술주 부진 속 리스크오프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엔화 가치가 반등
- 중반, 일본 근원 기계수주 감소세 전환 등 일본 경제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약세로 재차 전환
- 후반, 미 소매판매 호조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세 등 미국 경제의 견조함과 그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세에 약세 압력이 가중되며 150엔을 돌파. 이어 주 후반, 일본 재무성 재무관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약세폭을 일부 되돌리며 149엔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9.1	150.3	148.9	149.5	+0.4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0/14~10/18)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표가 시장 예상 하회한 가운데 외국인 국채 선물 매수 영향 등으로 소폭 약보합 출발. 이어 연준 주요 당국자들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지만, 시장 영향 제한 속에 긍정적 외국인 수급 영향 등으로 하락
- 중반 들어, 뉴욕 연은 발표 미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급락 양상 보인 가운데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 기업 ASML의 실적 충격 등이 위험회피 심리 강화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 금리 하락 추세 지속
- 후반 들어, 호주 고용지표 호조 소식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주 후반, ECB의 금리인하 결정에도 미 소매판매와 고용 지표 호조에 대한 영향이 다소 크게 반영되며 상승 추세 유지 속에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PPI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흐름 속에 뉴욕증시 금융주 실적 개선 소식 등으로 2,620선 회복하며 출발. 이어 뉴욕증시의 반도체 업종 선방 등의 영향이 반영된 가운데 북한관련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으로 방산주 등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 형국
- 중반 들어, 연준 인사의 제약적 금리수준 완화 발언에도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기업 ASML의 실적 충격이 국내 반도체 업황에 전이되며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대만 TSMC의 3분기 호실적에 반도체 지수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 전환했지만 자동차, 이차 전지 등 주요 업종의 상승 폭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확대 등으로 소폭 하락 후, 주 후반, 중국 소매판매 등 경기 지표 개선에 따른 중국증시 강세 흐름에도 차주 실적시즌을 앞두고 기대감과 모멘텀 등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수매도 지속 등으로 하락